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 오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전 예배의 사모함을 항상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2. 5월 정기 당회가 수요일 예배 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3. 향존 직분자 교육이 다음 주일 예배 후 느헤미야실에서 계속됩니다(3시 50분).
4. 신앙의 토대 월요일반 성경공부는 내일 휴강하며 다음 주부터 장소를 교회로 옮겨서 공부합니다(오후 7시, 다비다실).
5.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바랍니다(오후 7시, 본당).
6. 각 공동체장과 인도자들은 상의하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시기 권면합니다.
7. 김상덕, 박제란 권사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8. 등록된 성도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선주 성도 (2 여선교회): 12 Ngahue Dr, Stonefield 021-411-393
9. Lockdown이 1단계로 내려올 때까지 예배 안내 위원이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주보 역시 들어오시면서 한 부씩 지참하십시오. 또 손 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으니 사용하기 바라며 정부 방침에 따른 출석 명부를 기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주일예배는 Lockdown이 1단계로 내려올 때까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진행됩니다. www.youtube.com/calvaryorgnz 이나 교회 홈페이지 www.calvary.org.nz 로 들어가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방법:

예금주: Calvary Church

은행구좌: ASB 12-3042-0352091-00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6월 교회사역일지

6월 14일(주일)
그루터기 주일 (3040)
6월 28일(주일)
성찬주일,
유아세례,
권사 기도회

6월 기도 순서

6월 7일 (주일)
박병민 장로
6월 10일 (수)
박제란 권사
6월 14일 (주일)
손조훈 집사
6월 17일 (수)
박후임 권사

6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22호

2020.05.31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예배 수 7:30pm
금요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아동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청 년 예 배

오후 3시 15분
금주기도
이에은 자매
다음주 일
황보준호 형제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요한복음 7:37-39	인도자
✧찬 송	----- 35장	다함께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 250장	다함께
대 표 기 도	-----	박덕철 장로
성 경 봉 독	----- 창세기 7:11-24	인도자
설 교	----- 문을 닫으시니라	이태한 목사
찬 송	----- 521장	다함께
헌 금 기 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응 답 송	----- 310장 (1,4절)	다같이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	문일숙 집사
성 경 봉 독	-----	누가복음 12:13-21
설 교	-----	생명과 소유의 넉넉함
	-----	이태한 목사
찬 송	-----	488장
주 기 도	-----	다같이

이번 주는 베트남 이지양 선교사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우한 발 코로나바이러스가 온 지구에 상륙한지 어느덧 4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선제 대응 차원에서 각종 모임을 대폭 축소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동안 평상시 생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시간 속에서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관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제 조금씩 해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당하는 자들의 자리로 찾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현지 교회 목사님의 안타까운 전화를 받습니다. 코로나19로 복권 판매자들과 일일근로자들의 생명의 양식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4월달 100명에게 베트남 빵(반미)을 교회에서 준비하여 시장에서 그리고 몸이 불편한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현지 교회는 이 사역을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공장에서 빵을 구입하고 교회 스텝들이 재료들을 준비해서 빵 속에 야채, 소시지, 햄 등 맛있는 것들을 채웁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준비하며 매일 수고했습니다.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현지 교회 목사님들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행복한 사역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3월 30일) 시작된 생명의 양식 건너 사역에 현지 목사님이 감동이 되어서 감사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가져가서 전도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사태로 년 록 교회는 생명의 빵 나눔으로 가정을 찾아가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서 빵을 나누며 주님을 전도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계속 아프고 자녀 3명이 어리고 며느리도 아픈 분입니다. 그들의 가족은 이 선생님(이지양 선교사)과 후원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 울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받으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선생님과 후원자들에게 더욱더 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준비된 형제자매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으로 교회 안에서 나눔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군가의 보리떡과 생선을 통해 교회 성도님들을 나눔의 도구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늘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 함께 사역하는 현지 교회들이 내적 외적 부흥이 일어나며 현지 교회 목사님들 건강과 성령 충만하도록.
- 선교사가 주님과 친밀감으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도록.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St. David 교회의 임시 노회장 Glynn Cardy 목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 하사 현안들이 잘 해결되도록.
2.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가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회복과 해결의 역사가 있도록.
3. 새로운 결심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영적 회복을 다시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2020년 5월 24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홍수의 시작> 창세기 7:1-12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삶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7:1).

1) 노아의 의로움은 고난을 이겨내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용사 같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노아는 방주를 짓는 사명을 받았을 때에도, 500세까지도 자녀가 없었습니다(창 5:32).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고통과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지금이 바로 신앙의 방주를 지을 기회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하는 여호와와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렘 33:1,3). 방주를 짓는 나의 고난으로 인해 나쁜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2) 노아의 의로움은 인내하는 의로움입니다: 노아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은 120년의 유예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평과 의심 없이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10년 기다리다가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 비해 노아의 인내는 정말 대단합니다. 내 지식과 상식에 어긋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십니다. 실직과 병고와 어떤 고난이 있다 해도 노아처럼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의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조롱받고 고독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히 10:36).

3) 구원의 방주에 부정함 짐승도 들어갔습니다(7:2):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부정함 짐승도 부정함 사람도 다 방주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막 2:17). 우리도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뮬거리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롬 14:1). 둘째, 부정함 짐승도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6:18). 홍수 심판 후에 노아는 정결한 짐승으로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8:20). 정결한 짐승은 부정함 것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이는 부정함 나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게 때문입니다(신 7:9).

방주에 들어간 후 아직 비가 오지 않았던 칠 일(7:10)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끝까지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봅니다. 오늘 마지막 칠 일의 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간 성경 묵상: 유다서, 요한계시록 - 시편 5편

금주의 암송 말씀 - 창세기 7:16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